

'환상의 짝꿍' 배대선 조교사-김효정 기수

배대선, 명문 마방 '20조' 진두지휘 데뷔 4년차 김효정 차세대 스타기수 첫 대회부터 '머니대륙' 준우승 합작

2020년 경자년을 맞아 한국 경마에서도 쥘띠 스타들이 맹활약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20조 마방의 배대선 조교사와 김효정 기수의 호흡이 돋보인다. 올해 다섯 번 출전해 네 번의 순위상금을 획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은 쥘띠 60년생, 96년생으로 '띠 동갑'이라 더욱 눈길을 끌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배대선 조교사는 '국산마 명문마방'으로 유명한 20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1995년 데뷔해 지난해까지 총 24개의 대상경주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국산마 명문으로 자리 잡은 20조의 인기 국산경주마 '백광'과 '백파'는 각 3회씩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백광'은 부상 후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재기에 성공해 경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경주마 최초로 동물이름 기부제1호 사례를 기록하며 지난해 작고한 이수홍 마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더욱 빛나게 했다.

2017년 데뷔한 신예 김효정 기수는 당시 서울 경마공원에서 5년 만에 탄생한 여성기수로 주목받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4%대의 복승률을 유지하며 차세대 여성 스타기수로 발돋움했다.

작은 체구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테니스 선수로 활동한 운동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해 개인통산 40승을 달성하며 '신인 띠지'를 떼고 50승, 60승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배대선 조교사와 김효정 기수는 1월 4일 새해 첫 경마일에 경주마 '머니대륙'을 준우승시키며 합을 과시했다. 4코너까지 후위 그룹에서 경주를 전개해가던 '머니대륙'은 결승선 직전 직선주로에서 힘찬 발걸음을 보이며 선두권에 합류했다. 2착하며 경주마의 추진력을 이용한 작전을 제대로 성공시켰다.

김효정 기수는 3년째 계약기수로 20조 마방과 연을 맺고 있다. 계약 기수는 해당 마방의 경주마들을 꾸준히 훈련시키며 함께 성장한다. 직접 경주마를 훈련시키며 마필들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조교사에게 경주전개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한다. 조교사와 계약 기수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에서 조교사와 기수는 프로스포츠 세계의 동반자로서, 이들의 호흡은 기수와 말과의 호흡 못지않게 경주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배대선 조교사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20조 마방에서 늘 밝고 건강한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는 김효정 기수를 보며 힘을 낸다. 올해도 욕심내지 않고 매순간 충실하게 임하는 것, 말과 기수, 마방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배대선 조교사



김효정 기수

'황태자' 문세영 기수, 부상 3개월만에 컴백

2월 1일 경주마 '아이스핀치'와 호흡

서울 경마공원의 문세영 기수(39세, 프리)가 돌아온다. 지난해 11월 부상 후 약 3개월 만에 경주로 복귀다.

문세영 기수는 2월 1일에 8두, 2일에 7두에 기승할 예정이다. 1일 제1경주에서는 경주마 '아이스핀치'와 호흡을 맞춘다. '아이스핀치'는 문세영 기수가 훈련하며 데뷔전



문세영 기수

을 준비하던 경주마로 기대감이 높다.

지난해 11월 2일 제2경주 중 나막시교를 당한 문세영 기수는 코와 광대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선두 그룹에서 3코너를 돌던 중 나막시 교차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경주마와의 충돌사고는 없

었으나 골절로 인해 일정기간 경주로를 떠나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골절 수술과 함께 이전에 부상당한 어깨와 쇄골의 핀 제거 수술도 함께 받았고, 회복기간을 거쳐 근육훈련에 더욱 집중했다. 복귀 3주 전부터 기승 훈련을 하며 경주로의 진입을 도왔다. 문세영 기수는 "지난해 '물 만난 고기'처럼 경주로를 누볐다. 2019년 최우수 기수로 선정됐고, 개인 통산 1500승을 돌파(1월 30일 기준 1588승)한 해였다. 4번의 대상경주에서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이 중 두 번은

2019년 연도대표마 '문학치프'와 함께했다. 스텔토 서울과 부경 경마공원 기수들을 통틀어 최고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461번 출전해 120번 우승하며 승률 26%, 복승률 45.1%를 기록했다.

문세영 기수는 "지난해에 마무리를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휴식을 통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올해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고, 1등을 지켜야한다는 압박보다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소중히 하고, 또 부상 없이 말만 꾸준히 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서부 최강 LA레이커스, 새크라멘토 썸이야" 72%

농구도토 승5패 4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월 1일(토)과 2일(일) 사이에 벌어지는 미국 프로농구(NBA) 7경기과 국내남자프로농구(KBL)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도토 승5패 4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새크라멘토-LA레이커스(9경기)전에서 원정팀 LA레이커스가 71.88%의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선두에 올라있는 LA레이커스는 새크라멘토 원정을 떠난다. 현재 LA레이커스는 36승10패의 성적을 거뒀고, 새크라멘토는 17승29패로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물러 있다.

이어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17.12%로 나타났고, 홈팀 새크라멘토의 승리 예상은 11.00%로 집계됐다.

안방에서 미네소타를 맞이하는 LA클리퍼스의 승리 예상은 79.18%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5점 차 이내 접전승부 예상과 미네소타의 승리 예상은 12.28%와 8.54%를 기록했다.

더불어 루카 돈치치가 이끄는 서부 컨퍼런스 6위 댈러스(72.15%) 역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원정팀기를 치르는 유타재즈(55.32%)와 마이애미(54.87%)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2월 1일 펼쳐지는 울산현대모비스-안양KGC(3경기)전에서는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양KGC의 승리 예상(55.43%)이 국내프로농구 경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양팀의 5점 이내 접전승부 예상은 27.14%를 차지했고, 홈팀 울산현대모비스의 승리 예상은 17.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다만 2월 2일에 펼쳐지는 원주DB-안양KGC(14경기)전에서는 안양KGC 승리 예상(17.40%)보다 최근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원주DB의 승리 예상(54.87%)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승부 예상은 27.73%를 차지했다.

한편 전주KCC-서울SK(13경기)전에서는 양팀의 5점 이내 접전승부가 37.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고됐다.

NBA와 KBL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농구도토 승5패 4회차 게임은 2월 1일(토) 오후 2시 5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레스터시티-첼시 박빙...무승부 1순위" 35%

축구도토 승무패 5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월 1일(토)부터 3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도토 승무패 5회차 레스터시티-첼시(2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34.52%가 양팀의 무승부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홈팀 레스터시티 승리 비율은 31.62%로 나타났고, 원정팀 첼시의 승리 예상은 33.86%로 집계됐다.

4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세필드전 역시 무승부가 4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경기 본머스-애스턴빌라전과 5경기 뉴캐슬-노리치시티전의 경우 홈팀인 본머스(44.07%)와 뉴캐슬(66.73%)이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6경기 왓포드-에버턴전과 13경기 번리-아스널전의 경우 원정팀인 에버턴(41.98%)과 아스널(57.10%)의 승리 비율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라리가에서는 이강인이 활약하고 있는 발렌시아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76.41%의 몰표를 얻어 어렵지 않게 승점을 확보할 것



으로 나타났다.

마드리드 데비아가 벌어지는 8경기 레알마드리드-아틀레티코마드리드전의 경우 홈팀인 레알마드리드(60.42%)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과반수를 넘겼다.

한편 이번 승무패 5회차는 오는 2월 1일(토) 오후 8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소액으로 즐기면 재미 두배 '토토 언더오버' 5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오는 31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5회차의 발매를 시작한다.

3천원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 득점이 주어진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5회차의 경우 오는 2월 2일(일)과 3일(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3경기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경기, 그리고 미국프로농구(NBA)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판들을 찾아간다. 세리에A에서는 아탈란타-제노아(2경기)전과 라치오-스팔2013(3경기), AC밀란-헨라스(4경기)전이 선정됐고, EPL에서는 번리-아스널(1경기)전과 토트넘-맨체스터시티(5경기)전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NBA에서는 디트로이트-덴버(6경기), 토론토-시카고(7경기)전이 토토판들을 찾아간다.